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유 진 형
편집인 : 박 상 호

나침반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5년 10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83호

3. 영적지도자에게 듣는다(장경동목사)
5. 방글라데시 다카에 영원한 생명수를
7. 기적의 역사를 쓰고 있는 교회
9. 결혼준비 자기자신을 바로 진단하라

2005 성시화를 위한 춘천선교대회
'춘천을 성령의 불로 새롭게'

지난 9월 25일 주일 부흥성회를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한 주간을 성시화 주간으로 선포하고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유진형 목사) 주최로 열린 '2005 성시화를 위한 춘천선교대회'가 대 성황리에 화려한 성령의 잔치를 벌였다. 9월 25일 주일저녁부터 27일 화요일까지 석사감리교회에서는 장경동 목사를 초청하여 3일 동안 새벽예배(05:00), 오전예배(10:30), 저녁예배(07:00) 매일 세 차례씩 부흥사경회가 열렸는데, 이번 성회는 2층 본당과 3층, 1층과 지하 예배실까지 발 디딜 틈도 없이 성전을 가득 메웠다. 첫날부터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천여명의 성도가 다시 돌아갈 정도로 뜨거운 열기 속에 하루 약 1만 여명이 참석하여 성령을 사모하며 은혜 받고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집회였다.

MBC 느낌표!의 '찰칵찰칵' 코너에 출연하여 잘 알려진 장경동 목사(대진중문침례교회)는 깊은 목상과 득서를 바탕으로 한 탁월한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을 강조하며 연일 불같이 뜨거운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번 대회에서 춘천목회자 축구회는 27일(화) 오전 8시 공지천 잔디구장에서 '춘천시 목회자 친선축구대회'를 펼쳤다. 이날 교단별 축구 대항을 통해 목회자들은 자천 심신을 단련하고 서로의 친선을 도모했다. 특별히 장경동 목사도 함께 하여 춘천의 목회자들과 친선을 다지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8일(수) 오전 10시 카페 크리스챤에서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성시화 포럼'이 열렸다. 기독문화에 관심 있는 춘천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약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균 목사(평화교회), 최상도 목사(사암교회), 이정배 목사(온의교회), 박의범 교수(강원대)가 문화를 통한 성시화의 전략들에 대해 발표한 후, 질의 문답하며 열띤 논의를 하였다. 이날 카페 크리스챤을 운영하던 연합회기독문화위원장인 한균 목사는 이 카페를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에 기증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29일(목) 오후 7시 등부교회에서는 직장선교연합회 주관으로 찬양제가 열렸고, 10월 8일(토) 오후 6시 춘천문예회관에서 선교대회의 일환으로 '제19회 춘천연합찬양축제'(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주관)를 열어 장학금 전달 등을 통해 소년소녀가장들을 들어보게 된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이땅의 성시화를 이룰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계속적으로 활활 타오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글 편집부]



이달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성시화를 위한 춘천선교대회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룰 환상을 보게 하셨던 놀라운 성령의 집회였다. 이제 이를 통해 기도의 불,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춘천이 되고, 모든 교회들이 크게 부흥을 이루도록.

· 카페 크리스챤의 운영을 위해
춘천기독교연합회의 기독문화 위원장인 한균 목사는 2004년 기독문화를 통한 성시화운동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대형 몬서트를 개최한 후 카페 크리스챤을 인수 운영하다가 이번에 이 카페를 기독문화의 산실이 될 것을 소망하며 기증하였다.
이 헌신을 계기로 성시화운동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독문화가 창출되도록.

· LA 세계 성시화운동을 위해
10월 7일부터 선교의 본고장인 미국의 심장부에 성시화의 비전을 품고 미국복음화의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며 복음을 역수출하게 되었다. 성령의 새 바람이 일어나서 거룩한 집회, 세계를 품는 대회가 되도록.

· 강원기독경영인 아카데미를 위해
한국최초로 열리게 되는 경영아카데미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경영원리, 학계와 전문지식 영성을 겸비한 성숙한 전문경영인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9월 22일 등부교회에서 시작된 강원기독경영인 아카데미를 통해 강원도의 경제를 책임질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 성전건축 지희 우룡과 함께하십시오

● 성전이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시 부족 자금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저희 우룡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 건물의 계획 · 설계 · 시공 · 사후관리를 ONE-STOP으로 처리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 이젠 믿음으로 크는 기업인 우룡건설과 함께 하십시요. 각종 문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우 룡 건 설
http://www.wrcon.co.kr

● 우룡건설은 젊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의 경력과 연륜이 짧은 것은 아닙니다.
●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기술자들이 이끌어 가고 있고, 꿈과 희망을 가진 기술자들이 뒤를 받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 건축주와의 약속을 잊지 않으며, 공사중이나 공사 완료 후에도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기업입니다.

Wooryong Construction Co., Ltd

문 의 본사 공무부 박정규 부장 031-246-0565(직통 208), 017-408-0180(휴대전화), webmaster@wrcon.co.kr

■수 원 :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79-1 송죽빌딩 3층 (031)246-0565 ■서 울 : 강남구 대치동 912-21 (02)564-0445

특 집

제2회 성시화 포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문화로 표현해야..."(한 균 목사)



왼쪽부터 최상도 목사, 이정배 목사, 한균 목사, 박의범 교수

지난 9월 28일(수) 오전 10시 '카페 크리스챤'에서는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한 "제2회 성시화 포럼"이 열렸다. "성시화와 문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조영춘 목사(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춘천의 지도급 목사, 장로, 기독단체장, 여성 지도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종일관 진지하고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먼저 주 발표자인 한균 목사(문화위원회 위원장, 평화교회)는 "현대 세속사회 속에서의 기독문화의 위치와 내용 창출에 관한 소론"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목사는 '기독교문화'와 '기독문화'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를 역설하였다. 기독교문화라 하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역사적으로 만들어 낸 제반 문화 현상을 말하며, 기독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입각한 모든 문화현상을 말한다. 기독교는 타종교와 같이 계속 개혁되어야 하고, 교회 또한 계속 갱신되어야한다. 하지만 기독교란 종교를 떠나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오하신 분, 절대적 신앙의 대상,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문화 창출이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사고와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생활양식을 만들자는 것이지 기독교란 종교문화를 추구하자는 것이 아님을 한목사는 분명히 하였다.









더 나아가 한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문화라는 옷을 입혀 세상에 표현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음악, 미술, 문학, 연극, 영화, 멀티미디어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문사역자를 길러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기독문화 교육프로그램, 이론과 전략의 필요, 기독문화가 세속문화정책에 영향을 주고 주도해야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의범 교수(강원대 교수)는 [기독경영 아카데미]의 사례를 통해 기독경영인들이 어떤 시각으로 성시화와 그리스도인의 문화변혁에 참여해야하는가에 대해 심도 있게 언급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정배 목사(미디어 비평가, 온의교회)는 미디어적 측면에서의 기독문화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목사는 기독문화와 미디어와의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춘천의 기독인들이 기독문화유산을 보다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힘쓰기를 소망하였다.

네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상도 목사(성시연구소, 사암교회)는 아래 세대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교회와 문화와의 상관성을 규명하였다. 이 시대의 흐름인 "등양학"과 "민족주의"를 이해하고, 교회가 보다 겸손한 자세로 타종교와 아래 세대들의 문화에 대해 경청할 것을 역설하였다.

발표자들의 발표 후에 청중 가운데서도 다채로운 질문과 제안들이 쏟아졌는데, 전통 문화와 기독인들의 수용성 문제, 춘천 기독인들의 유일 문화공간인 [카페 크리스챤]의 운영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 춘천기독교 초기 유적인 구 춘천중앙감리교회의 보존문제, 성시화운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홍보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카페 크리스챤]의 운영주체인 춘천 평화교회 담임목사 한균가 기독교연합회 및 성시화운동본부에로의 운영권 이양 및 기증소식이 발표되어 청중들을 더욱 고무시켰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성시화 포럼. 앞으로도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춘천이 이러한 기독문화운동의 중심에 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문화운동의 비전을 가지고 힘찬걸음으로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민족과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글 편집부]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상호 조영춘
최영조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김춘배
김미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해비타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집을 선물합니다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문의처 ☎254-0009

맑고 높은 가을날,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에 춘천지회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의 열매로 2005년 해비타트 주택이 2동 8세대가 건축되어 9월 14일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이 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분들이 한마음이 되었기에 이루어낸 걸작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며 협력하여 한마음이 되었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 또한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자원봉사자로 다녀가신 분들, 그리고 배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Habitat 주택, 사랑의 집은 계속 지어질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이웃분들에게 해비타트 주택 건축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계좌 : 농협(예금주: 사랑의집짓기 춘천지회) 203-01-510404

영적지도자에게 듣는다

이번 시간에는 2005년 성시화를 위한 춘천선교대회(9.25~27) 주강사로 오신 대전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님과의 인터뷰입니다.



조: 목사님, 반갑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시며 말씀사역을 하시는 귀한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춘천과 교회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춘천은 매우 깨끗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에 오면 다른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이 들어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적 열정도 매우 큰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정: 요즘 한국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전국에 있는 교회를 두루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한국교회를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동산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담타락 이후 영적인 문제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의 시각으로만 보면 문제만 보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진짜 신경 써야 할 문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을 문제들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안하고, 사람의 힘으로 또는 감정적 이성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더욱 복잡한 문제만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면 역동적 생명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교회를 문제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점이 보이면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기도의 불을 붙이고,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조: 부흥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성도님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요. 성경적으로 바른 부흥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부흥과 관련해서 목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흥회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변질되고 왜곡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 건축이나 목회자 대우 등의 목적을 위해 부흥회를 하게 되면 부흥회는 본질에서 떠나 변질되어 잘못된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하게 되면 신자들이 심처를 입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경험이 있는 불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건축을 무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건축 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신자 전도를 통해서 모이든 사람들이 아니라, 근처의 작은 교회에서 이동해온 교인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런 식의 부흥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혼구원과 전도에 큰 걸림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충을 잡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면은, 처음에는 약발이 잘 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서 농약을 사용해도 해충이 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간 불신자(?)들은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 전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거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볼 때 매우 이상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많아지는 것 같은데, 한국교회 전체는 영적침체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교회부흥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순리대로 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버리고, 조금 더디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정: 춘천은 성시화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바꾸어 나가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되요. 부흥회는 며칠 밖에 안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르마 카톨릭은 진리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비쳐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선행을 강조하고 선행을 많이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에는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 7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지역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부흥하고 칭찬받는 교회 10교회만 뽑아서 연구해 보세요 춘천지역의 교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교회연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연합운동이 교회 연합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간혹 보게 됩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교회 연합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마음이 하나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모임에 힘쓰자! 하는 생각이 듭곤 합니다.

대형연합을 추진할 것인가? 소규모의 연합운동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 같은데요. 송구스럽습니다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합집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연합회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장경동 목사 한번 모셔보자! 그래서 제가 가게 된 연합회가 가끔 있어요. 제가 볼 때 연합회가 잘 안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합회를 이끌만한 인물과 강사가 없다는 점이구요, 두 번째로, 연합회모임을 통하여 교인 이동이 생기게 되면 마음에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합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방울, 두 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면 못할 것이 없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 목사님, 목회자와 부흥사로서 앞으로 사역의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제 사역의 비전은 민족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캐틀릭에 다니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여 교회부흥과 민족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제 꿈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교회가 말씀위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세상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어요. 사회가 불안하고 정치가 혼란합니다. 지나치게 극단적인 사고를 버리고 북한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통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넓은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조: 마지막으로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임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희생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임원과 직분은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름을 내고, 얼굴을 내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감추어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조: 지금까지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능력의 말씀으로 부흥의 불을 지펴 주시길 바랍니다.



삶

"꽉 찼습니다"

두 번째 기독기업체탐방으로 쏘인테리어 권승갑 장로(제일장로교회) 편입니다

쏘인테리어의 '쏘'란 Standing Space Only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자리가 만원이다' 혹은 '자리가 꽉 찼다'는 뜻이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업체 이름으로 삼기라도 한 듯 권승갑 장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신실함으로 꽉 찬 모습이었다.

쏘인테리어 사무실은 전에 사진 스튜디오로 사용되던 곳으로서 고가구 등으로 인테리어 되어 예술품 전시공간으로 사용됨이 더 잘 맞는 곳이었다. 권장로는 본래 증앙대에서 대학원까지 줄곧 서양화를 전공한 화가이다.



새로운 소명을 주심

1995년 춘천에 내려와 전업 작가로 그림을 그리려고 작업실을 만드는 도중 김자기 설계도면이 보이더란다. 대학에서 인테리어를 전공해야 도면을 볼 줄 알게 되는데 너무나 놀랐단다. "당시 서양화를 그리려는 내게 왜 인테리어 도면이 보이는지, 또 그쪽 일이 의뢰가 들어오는지 궁금했습니다"고 권장로는 말한다. 당시 권장로는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때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단다.

경남 삼천포 출생인 권장로는 고등학교까지 고향에서 마쳤다. 취미로 서양화를 그리셨던 그의 부친은 그림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다. 장남인 권장로에게도 어려서부터 그림도구를 장만해 주었다고 한다. 그런 영향 때문에 권장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바닷가로 나가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열어 나갔다. 그림그리기와 철학적 사고가 연결된 탓일까! 그는 어려서부터 인생에 대한 물음이 많았단다. 비록 부친이 권장로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구들을 장만해 주었으나 중학교 때까지 학업성적이 좋았던 그에게 기대한 것은 정치인이나 관료였다. 그러나 권장로는 중3때 늘기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조금씩 빗나가더니 심지어는 도박까지 손을 대는 등 흑독한 사춘기를 보냈다고 한다. 결국 그는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했고 그 충격으로 가출했다. 하지만 마음을 잡고 집으로 돌아와 부친이 권해주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공부에는 별 뜻이 없어 주로 미술반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오직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만 몰두했다. 고3이 되고서야 그림에 대해 잘 알려면 미대에 진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준비하여 대학에 진학을 했다.



권장로는 대학에서 미술공부를 하면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물음으로 상당히 고민을 했단다. 그 때 그 해답을 얻기 위해 교회에 3개월 다녔으나 어떤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대학 3년 때 인생의 도피겸 들어간 군대에서도 인생에 대한 물음은 끊이지 않았다. 시대에 저항하다 희생물로 들어온 동료들, 고참들의 변변한 구타 등은 권장로의 물음을 더욱 깊게 했다.



위기를 신한 신생의 전환

1989년에 조각가 손은경씨와 결혼한 그는 인생에 대한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에도 심취해보고 다른 동양사상에도 빠져 보았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해답을 얻지 못했다. 권장로는 그림을 그리는 한편으로 집니가는 입시학원을 운영했는데, 당시 매일 술자리를 갖고 가정은 돌보지 않는 바람에 가정에 위기가 닥치게 되었다. 서로 충돌하는 일이 잦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다 보니 이혼직전까지 갔다. 또 권장로가 가정적이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

학원을 그만두고 춘천에서 전업 작가로서 직업실을 내려고 결심한 권장로는 머리를 식힘 겸 1994년 연말에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만났던 친구 김영주 안수집사(삼천포교회)는 이때 권장로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유한 끝에 함께 송구영신예배에 나가게 된다. 권장로는 대학생 때와는 달리 기독교가 자신에게 의미를 줄 것 같은 마음이 들어 1995년 1월 1일 춘천제일교회에 등록하게 된다. 아내인 손집사도 이때 속으로 곪던 마음의 돌파구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기에 권장로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게 된다. 권장로 부부는 현재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진보를 보이도록 이끌고 있다. 두 딸도 부모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 외국에서 공부하는 큰 딸은 찬양대로 섬기고 있다.

권장로 부부가 주님을 믿게 된 데에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던 친구 김영주 집사와 보살이었다가 먼저 주님을 믿게 된 권장로 외숙모의 오랜 기도가 있었다. 본래 유교적인 배경을 가진 집안의 권장로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오랜 전도 끝에 종가집 며느리인 어머님의 영접으로 온 집안이 다 주님을 믿게 되었다.

고난을 통한 성장

권장로의 신앙이 성숙하게 된 것은 고난을 통해서였다. 당시 회단의 갈등에 대한 염증으로 붓을 놓게 된 그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열게 된 인테리어 사업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 보니 믁희자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과 거래를 많이 하면서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단다. 하지만 그때마다 담임목사인 박상호 목사가 그 어려움을 잡아주었으며, 또한 성경공부를 하던 프리셉트의 김경섭 원장이 힘이 되어주었다.

또 IMF때는 사업자체가 휘청거렸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공사를 맡긴 그리스도인인 업주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어려움은 증폭되었다. 하지만 주님은 인내하게 하셨고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다. 권장로는 지금도 그때 위로받은 말씀만 보면 눈물이 난다고 한다.

삶으로의 비전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IVF(기독학생회) 이사로, 프리셉트 후원으로, 몽골선교팀을 통한 해외선교로 나누고 있다. 특히 몽골선교를 위해 그는 몽골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권장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명을 인테리어로 돕린 의미를 생각하며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한다. 개척교회 등의 리모델링, 건축을 돕기 위해 자료제공, 시공법 상담, 인테리어 디자인 등의 조언을 하려고 한다. 또한 10년 동안 놓았던 붓을 다시 집고 작품 활동을 재개할 생각이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은사를 주님의 시각으로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스 철학에 바탕을 둔 작품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탕을 둔 작품을 그려서 개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권장로는 7, 8년간 기도해온 제목이 있다. 청소년 문화학교나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단지 건물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센터를 사용하여 기독교적 문화컨텐츠를 만들고 문화적 접근을 통해 복음전도를 하려는 것이다. 춘천 도심을 살리하는 일에 그는 문화로 도우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주님께서 주신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마음으로 꽉 찬(Standing Space Only) 권장로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해 본다.

|취재 권기찬 / 사진 김미경|



어머니와 딸 세대가 함께 하는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춘천점

연예인과 함께하는
제시뉴욕
가죽·모피·에복전문
대표 전 순 천
위치 : 조양동 조흥은행본점 앞 ☎ 252-7262

아름다운 음악 학원

원장 강 현 숙 집사
(안빛교회)
위치 성림초등학교 후문(태계동)
☎251-4246 / 011-9790-4246
피아노 플룻 단소 리코더 오카리나 반주법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방글라데시 다카에 영원한 생명수를...

춘천 예수전도단(YWAM)의 제자 훈련프로그램인 제2기 독수리에수제자훈련학교(BEDTS)에서 교육(5.6~10.7)을 받고있는 우리는 지난 8월 12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YWAM의 J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방글라데시 다카에 전도여행을 다녀왔다. 전도여행을 위해 두 달여 동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펌프(12명)'라는 팀명(우리를 통해 생명수가 흘러넘치길)을 정하고, 드라마와 율동 및 각각의 JOB을 맡아 교육받으면서 준비하였다.

1971년 동파키스탄에서 독립한 방글라데시는 서남아시아 인도반도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카(Dacca)가 수도이다. 방글라데시인(벵갈족) 98%, 소수민족 2%로 구성되어 있고, 국민의 98%가량이 방글라데시어(일명 벵갈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식인들이나 비즈니스 종사자는 대부분 영어를 상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종교는 회교(이슬람교) 89.7%, 힌두교 9.2%, 불교 0.6%, 기독교 0.3%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는 겨울(11-2월), 여름(3-6월), 우기(7-10월)로 구분되는 아열대 몬순기후이며 7-10월에는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곳으로 지구촌의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의 나라이다.

8월 13일(토) 밤 11시 방글라데시 다카공항에 도착했다. 열글을 업습하는 습하고 더운 공기... 거리의 쓰레기 냄새... 숙소로 향하며 이곳에서 과연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와 함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팀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 기대가 몰려왔다.

8월 14일(주일) 오후 L · K선교사 부부가 사역하고 계신 '소망의 집'을 방문했다. 이 소망의 집은 방글라데시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지도자를 영적으로 양육하는 곳이다.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진 아이들의 모습은 아주 밝고 구김살이 없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드라마와 율동,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 후, 소그룹으로 나눠서 방글라데시와 소망의 집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과를 나눴다. 특별히 뜨겁게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내일을 향한 이 나라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가지볼교회 (아이들과 풍선만들기)


'소망의 집' 아이들과


도올학교운동회(줄다리기모습)

8월 17일(수) 우리 팀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인 'Dowool 학교 운동회'가 있는 날이다. 이 학교는 J선교사가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기초보건학교 근처에 위치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게 할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오전 학생들에게 운동회를 홍보하기 위해 아트풍선을 만들어주고, 페이스페인팅을 해주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고, 또한 주민들도 함께 동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오후 2시 Dowool 학교 학생들과 동네 주민들이 운동장에 모였다. 교장선생님과 마을 어른들의 환영사가 끝난 후, 청 · 백 두 팀으로 나눠서 짝짓기, 풍선 터뜨리기, 공 전달하기, 꼬마야 꼬마야, 줄다리기, 계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약 300여명의 많은 아이들은 우리의 말에 잘 따르며 열심히 게임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곳은 규칙을 정하고 하는 게임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생소해 하면서도 무척 즐거워하며 따라하는 이들의 순수함에 우리 팀은 감동되었다.

운동회를 마친 후, 우리는 드라마와 율동을 선보였다. 특히 한복과 부채춤은 대단한 인기였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상처받은 많은 방글라데시 분들에게 한국민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며 큰 절을 올렸다. 이곳의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 같았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운동회를 열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운동회를 개최해준 것에 대해 교장선생님은 깊은 감사를 전하셨다.

뜨거운 태양을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서늘한 바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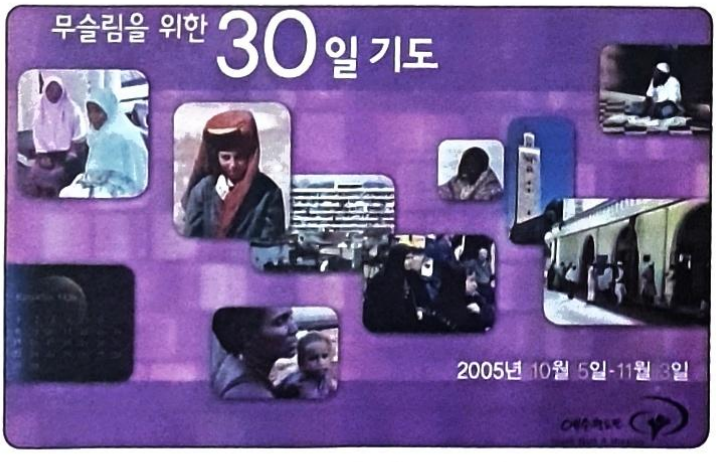
8월 18일(목) H선교사님이 사역하시고 계신 '두란노북음서원'에 들렀다. 우리 팀과 현지 훈련생들은 서로 말이 통하진 않았지만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 속에서 한마음, 하나 되어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방글라데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통성으로 기도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 언어는 달랐지만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며 모두가 감동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8월 19일(금) 가지뽑교회(담임목사 프레제)는 현지인 교회인데, 이곳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였다. 여기는 금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주일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이곳의 아이들은 예쁘고 정말 순수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종이접기, 풍선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찬양과 율동을 가르쳤다.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것이 이들에겐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짧은 전도여행이었지만 주님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셨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고 멋진 분이시다. 우리가 있던 8월 중순은 우기철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한다. 그러나 전도여행 내내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모두에게 신실하심을 나타내셨다. 정말 감사하고 가슴 벅찬 감동의 시간이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 방글라데시... 가난하고 살기 힘들지만 행복지수는 세계 1위라고 자위하는 나라, 그 그늘진 얼굴이 행복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특히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큰 눈망울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심을... 또 방글라데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변화될 것임을...

[글 김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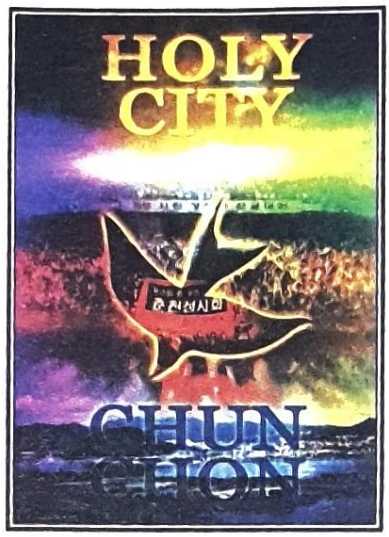
춘천에서-전국으로, 세계로...
예수향기를!!
교회헌수막 전문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천일디자인"만 허도 됩니다.
천일기획(디자인)
T.255-5722 F.256-5722

성 시

미국을 복음으로 새롭게

태평양을 건너 역매 맺게 될 성시화 운동...

하나님은 도시를 품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한반도의 심장 같은 춘천에서 성시화의 운동을 1972년에 시작하게 하셨다. 밀알 같은 뜨거운 헌신과 기도가 이어진지 어언 34년이 되어가는 즈음. 이 운동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이젠 전국적인 도시복음화운동의 핵심적 모델이 되어 각 도시를 살리는 성령의 헷불이 되게 하셨다. 그동안 확장과 성장을 이루며 전국 28개의 도시는 같은 성시화의 비전을 품게 되었고, 경제와 문화 정치 교육 등 각 영역마다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이번엔 태평양 대륙을 건너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미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LA에 성시화운동의 불을 지피면서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시어 세계의 모든 도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오는 2005년 10월 3일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의 교회들마다 성시화를 통하여 도시복음화를 이룰 것을 비전으로 채택하여 성시화 대회를 열고, 이어 10월 7일 LA 크리스천 센터에서는 'LA성시화 대회 2005'가 'HOLY LA'라는 기치로 모든 교회의 역량을 모아 성시화 세계대회(3일간)의 막을 올리게 된다. 이 세계대회를 위해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 모임과 기도회를 가지어 마약과 범죄가 판치는 헐리우드와 LA를 위해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다.

미국의 장미꽃같이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The Rose

지금 미국은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의 참전으로 인한 극론의 분열, 설상가상으로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 대재앙까지... 미국은 당황하며 침체된 영적 공황시대를 맞고 있다. 이때에 한국 민족복음화운동의 중심이 된 성시화운동이 미국의 심장과 같은 LA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시기적절한 하나님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이 대회의 참가예상인원은 약 10,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초청전도의 날, 성결과 실천의 날, 헌신과 파송의 날을 정하고 각 교회와 성도들은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총체적인 전도를 하게 된다. 또한 LA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과 회개와 갱신운동을 펼치면서 LA가 미국과 세계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하고, 미국 내 각 도시마다 성시화의 불씨를 지펴 미국복음화와 지구촌 모든 곳을 부흥의 불길로 변화시킨다는 원대한 꿈을 선포하게 된다.

또 이 대회를 통해 세계 성시화운동본부의 총회를 발족하게 되며, 지금까지 각 지역에 산발적으로 움직여가던 성시화운동이 정리된 비전선언문을 채택하여 통일성을 꾀하고, 동시에 더욱 생명력 있는 복음운동으로 전환하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영혼구원의 역사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 대회를 위해 한국의 홀리클럽 회장 전용태 장로와 로고스 법무법인의 양인평 대표가 블췰주아로 수고 하셨다. 강사에는 민족복음화운동을 일으키신 김준곤 목사(한국대학생선교회 명예총재), 홍정길 목사(남서울 은혜교회) 등과 LA지역 한인교회 유력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게 된다. 대회 주강사인 김준곤 목사는 미주 성시화 대회는 전교포의 신자화, 교포 2세의 선교자원화, 민족정체성 회복, 정직한 한국인 이미지 부각, 목회자들의 목양개념 변화 등 5대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번 대회에 김준곤 목사를 비롯해 포항과 부산의 많은 교역자들과 전용태, 양인평 장로 등 약 120여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게 된다. 춘천에서는 성시화운동 초창기에 발판 역할과 중심 역할을 하셨던 故김연호 목사님의 장남 김성호 목사(강촌감리교회)가 대표로 참석한다.

성시화운동은 도시민들을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복음화운동을 뛰어넘어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와 교육의 세계관을 변화시켜 모름지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적극적으로 이루려는 전략적 생명운동이다. 실상 이 운동은 하나님이 목자 되시어서 지금까지 불과 구름기둥의 은혜로 이끌어주셨다. 지금 우리 한국 교계는 전체적으로 부흥을 갈망하고 있다. 1907년 평양 대 부흥운동은 한국의 정신사의 큰 획을 그으며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이 부흥은 한국의 독립을 일으키는 정신이 되었고 민족상잔 전쟁의 깊은 아픔을 치료하였으며 민주화의 불꽃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70년대를 지나면서 성시화를 통한 민족복음화운동으로 발전해왔다. 이제 100년의 주기로 새롭게 일어난다는 부흥의 계절에 이 성시화운동이 한국을 걸쳐 지구촌의 비전이 되어 현 세계의 중심 국가이며 다인종 국인 미국의 대도시에서 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임을 확신케 한다. 이 운동이 미국의 모든 도시를 품으며 세계적 운동으로 진일보 발전해나감에 진정으로 축하를 보내며 LA와 샌프란시스코 성시화 세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 머지않은 장래에 북한 평양에서도 성시화운동이 점화되기를 기도해본다.

[글 편집부 조영춘]







주차걱고기의
DTPI 디티피아
- 업 체 : 양장, 스티커, 전단, 프스터, 카다로그, 각종봉투, 서식, 명찰
- 판 촉 : 캘린더 탭제작, 우니폼, 단체T, 각종판촉물, 캘린기념품(타올/우산등)
- 현수막 : 각종현수막, 실사현수막

"주님만이 나의 기쁨 전리오 빛이 되시네"

최 상 철 집사 (제일장로교회)
Tel :033.263.5152
Fax :033.242.5121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E-mail: chsch1784@yahoo.co.kr

현대 방앗간



각종 맞춤떡 구름떡 전문

대표 강동구장로
(동부교회)
위치 근화 신협 뒤
☎251-5078, 256-5088
/017-370-7881

기적의 역사를 쓰고 있는 교회

의미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시온교회(오생락 목사)편입니다

춘천 시온교회는 1991년 9월에 창립된 교회로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복음전파에 앞장서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4대 비전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이다. 10여년 만에 19평의 예배당에서 5차례의 이전을 거쳐 현재의 석사동에 정착,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온교회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자.

오생락 목사

기자단이 시온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한창 교회 증축공사가 진행되어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늘 그러하듯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오생락 목사. 현재 7층으로 증축하는 시온교회 증축 공사는 '신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로 모든 것이 새롭게 지어지고 있었다. 그 건축의 규모 또한 대단하다. 대 회의실, 청소년실, 악기 연습실을 갖추게 되는 시온교회는 현재 주일학교를 포함, 500여명이 출석하는 중형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춘천이 인구변화가 거의 없는 도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주목할만한 성장이다. 이러한 교회 부흥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오목사는 그 비결을 교우들의 공으로 돌린다. 그러나 시온교회를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생락 목사와 조금란 사모의 눈물어린 기도와 복음전파의 열망에 그 숨은 비밀이 있다고 말한다.

오생락 목사는 전북 익산이 고향이다. 불신자 가정이었던 오목사의 가정은 누님이 먼저 주님을 믿으시고 부친의 중병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 그 후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 복음에 대한 불타는 사명감으로 무장된 오목사는 졸업과 동시에 '십자군 전도대'(성결교회의 특별 전도단 명칭)에 소속이 되어 2년여간 전국 단위의 전도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① 최명희(좌), 최종권(우)전도사
② 시온교회 가족들

교회 개척

그 후 서울 시온교회의 전임 사역자로 섬기던 중 황충성 담임 목사로부터 춘천 지역의 개척을 권유받게 된다. 당시 더 깊은 필요를 위해 유학을 생각하던 오목사는 잠시 고민에 휩싸인다. 그러나 고민도 잠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때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처럼 오목사를 통해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말씀이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서울 시온교회의 후원으로 시작된 춘천에서의 교회 개척사역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았다. 초기엔 좁은 예배실이기는 하였으나 1년여 만에 교회를 이사해야 할 정도로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여러 차례의 교회 이전에 따른 입지 선정의 실패와 세속적인 교회 성장론을 거부하던 오목사의 순수한 목회철학이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

3년여 동안에 1-2명의 새 신자도 얻지 못하던 시절, 수중에 단돈 100원도 없을 때가 있었다고 한다. 쌀이 떨어져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 때도 자주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 하늘을 바라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길을 걸을 때 땅을 보고 걷는 버릇이 이 무렵 생겼다고 조금란 사모는 회상한다. 교회개척시의 아픈 내용은 교계 모 주간지에 조 사모의 수기가 평신도 부문에 우수작으로 당선되어 소개되기도 하였다.

5번의 교회 이전

시온교회는 10여년 동안에 무려 5번의 교회 이전을 경험하게 된다. 어둡고 긴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주님은 부흥의 블길을 허락하셨다. 석사동으로 이전, 건축을 결행했을 때 교회는 그때부터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 건축 전 70여명에 불과하던 교회는 불과 3년여 만에 500여명(주일학교, 청소년부 포함)의 교회로 자라가게 되었다. 시온교회는 요즘 거의 매주일 새가족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매주일 예배당이 비좁아 행복한 블편을 감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증이라고 누군가 귀띔한다. 돌이켜 보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오목사는 회상한다.

부흥의 시작은 제자훈련과 예배

시온교회는 제자훈련과정이 잘 수립된 교회이다. 새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새가족반, 목회자들과 함께 하는 1:1 성경공부, 그리고 제직들과 일꾼들을 대상으로 한 제자훈련 과정 등이다. 또한 오목사는 예배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목회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하기에 심령을 달구는 뜨거운 경배와 찬양, 진솔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화답으로 예배는 늘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끝으로 오목사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요 동역자라고 고백한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시온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최명희, 최종권 전도사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는 오목사. 늘 바나바의 온유함과 바울의 리더십을 유지하고자 애를 쓴다는 오목사와 시온교회는 지정이 시대의 기적의 역사를 새로 쓰고있는 교회로 남기만 하다.

(취재 최상도사진 김미경)



참사랑 내과의원
내과 · 소아과
▶ 비만 크리닉
▶ 노화방지 크리닉
▶ 갱년기 크리닉
10월 4일 확장 이전
남부초교
코렉스 마트
참사랑내과 이전예정지
터미널
춘천
하이마트
고가
남춘천역
삼성 서비스센터
위 · 대장 내시경 전문의원
내과전문의 원 장 정 형 만 ☎ 263-7560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신남
세경볼링센타
남춘천역
하이마트
춘천
시내
예약골 GS마트
감대정문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대표 이 용 운 집사
(온누리장로교회 ·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소개합니다

카페 크리스챤

기독문화운동의 진원지가 될 '카페 크리스챤'을 꿈꾸며

춘천 성시화란 거대 과제는 교회 안의 운동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은 범시민적이어야 하고 이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개입하여 근본적 변화를 일으켜야만 한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찾아야 합까? 여기서 기독문화운동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 부설 '카페 크리스챤'의 이사로 참여하실 교회와 헌신하실 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운영과 관리를 위한 모임이 10월 15일 토요일 12시에 있습니다.

기독문화운동이란 교회 속에서 교회 밖으로 향하는 성령 운동이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치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문화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문화운동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 **가치관 확립**. 둘째, **그 가치관의 구현**. 셋째, **그 가치관의 적용**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을 기초로 재정립되어야 하고, 그 가치관을 표출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등원되어야 하며, 표출한 그 가치관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영성운동 뿐만 아니라, 그 영성을 담아낼 다각적인 문화적 수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말과 글, 그림, 노래와 춤, 연극과 영화, 게임과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문화 매체를 동원하여 타락하고 혼탁한 세속 문화를 변화시킬 생명력 있는 기독문화를 창조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것을 연출하는 데는 구체적인 공간과 도구가 필요한 것이다.

감사하게도 98년 3월 9일 '흘리 갤러리'란 이름으로 거대한 세속 문화와 맞부딪혀 싸워온 외로운 믿음의 젊은이가 있었다. 박성모 집사! 그는 기독문화의 변화를 위해 자신의 터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재를 털어 고군분투했지만 누적되는 재정부족으로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 아름다운 뜻을 이어가기 위해 필자가 그것을 2004년에 개인적으로 인수한 후, 2억여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춘천에서 최첨단의 시설을 자랑하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는 '카페 크리스챤'이라 명명하였다. 이곳은 찬양 콘서트, 연주회 등 열려진 문화공간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춘천기독문화운동을 위한 더 큰 산실로 키우기 위해 춘천기독교연합회에 기증하게 되었다. 이는 춘천 성시화를 위해 드려진 하나의 작은 제물이다. 하나님의 붙은 언제나 주님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이 있을 때야 임하시기 때문이다.

춘천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함께 모여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의 몸질과 재능을 드려 기독문화운동을 일으키자! 춘천과 민족과 세계에 성시화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글. 평화교회 한균 목사]

영혼의 양식

승리의 비결 [요한일서 1 : 3-4]



지 용 찬 목사(춘천은혜교회)

창세기 18장17절에 하나님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과 교제 하셨고, 또 모세와도(출33:11), 그리고 다윗에게는 '내 종 다윗'이라고 불러 주셨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림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도 승리의 삶을 소원하고 있지 않는가?

요한사도는 1장에서 기쁨이 충만케(1:4), 죄를 범치 않게(2:1)...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하면서 승리의 비결이 '주님과의 사귐 곧 빛 가운데 거함이요' 그리고 '죄를 자백함'이라 말한다.

2장에서는

-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2:15),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고 하셨다.
-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고. 또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언급한다.

3장에서는

- 이 세상을 사랑치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의 방법을 언급한다.

①말과 혀로 사랑하자 - 덕스러운 말 한마디가 형제에게 힘이 된다.
②행함으로 사랑하자.
③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을 말한다.

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교제)하고자 할 때 미혹하는 영이 있는데 적 그리스도라고 한다. 적그리스도라 함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다. 신앙생활에 힘든 부분이 지신과의 싸움 그리고 원수 대적이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5장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공개한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5:4)

우리는 믿음에 대한 교훈을 마태복음 13장~17장까지 천국에 대한 비유와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믿음에 대해 13~17장 각 장마다 언급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심을 찾을 수가 없다. 오직 마15장에 가나안 여인만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 참고로 제자들은 막9: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막9:24절에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조차도 제자들에게서 찾아 볼 수 없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에 기도가 빠질 수 있을까? 믿음이 빠질 수 있을까?

오늘 승리의 비결은 서로 사랑하되 세상을 사랑치 말고 주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라 한다. 그러나 대적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증거 하라고 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그렇다." 마태복음 13~17장에서 본 바와 같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책망을 무엇으로 설명할까? 그러나 15장에서 칭찬 받았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이제 요일5:21절을 묵상해 보자.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주님과 교제, 주 안에 거하는 자만이 승리 할 수 있다. 주 안에 거하여 교제하는 자의 고백은 요한복음 3:16절을 믿고 요한일서 3:16절을 고백과 실천하는 성도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열린 꽃 화원



대표 하갑순권사
(한빛교회)

위치 석사사거리에서 교대후문 앞

☎262-1137 / 010-8210-1137

카네이션, 꽃바구니, 상견례 꽃이 강습, 관엽, 동·시정원 근조, 경조 조화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외 여행 일선 (수학·졸업 여행)
- 배낭여행·어학연수
- 전세 버스 알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지현집사 (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 244-7400 도청 밑에 위치

결혼 준비

자기 자신을 바로 진단하고 시작하기

결혼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결혼도 그렇다. 어떤 사람이 반려자를 구하려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는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부족함을 채워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결혼 반려자를 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반려자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사람인 나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인간을 지으신 설계자다. 나아가 그분은 결혼의 설계자이시기도 하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본 사람만이 비로소 올바른 결혼을 시작할 수 있는 첫 준비를 하는 것이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을 기억할 것이다(눅18:9-14). 하나는 세리였고 하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기의 그 부족한 면을 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호소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하는 판결을 받고 돌아갔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떤가?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잘난 사람이라고 여겼다. 자기가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감사했다. 우월의식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는 죄에서 건져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종교적인 행동들을 한다는 것만으로 그 자신이 대단히 높아있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님 없이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다면 그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며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도 자기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보와 변호 때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기까지 낮아지지 않은 마음은 아직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미래와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결혼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렇다면 왜 결혼을 앞 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또 결혼 반려자를 구하는 사람들이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18:13)라는 고백이 속으로부터 솟아 나와야 하는가?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으로 시작한 결혼은 신혼여행부터 기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 꽉 잡아야 한다는 정신으로 도도하고 우월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 중에 여행에서 돌아오며 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서로를 향한 존중 없이 행복한 가정은 세워질 수가 없다. 내가 낮아져서 섬기려는 자세 없이 가정의 화목은 이룰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전에 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겸손하게 만든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생각을 말아야 한다.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은 자니라.(잠18:22)"

합당한 협력자

아담에게 이브를 주신 것은 합당한 협력자로 삼기 위해서였다. 이브는 그(아담)를 위한 존재였다.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을 만드셨다. 아담은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합당한 협력자가 필요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려는 자매들은 생각해보아야 한다. '나의 협력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세워질 남자가 누구인가?' 라고... 그리고 형제들은 생각해보아야 한다. '나의 연약함을 가려줄 수 있는 합당한 협력자는 누구인가?' 라고... 남자에게 결혼은 협력자를 구하는 것이며 여자에게 결혼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혼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협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창2:18)

생각하기

- 세상풍습처럼 여자가 혼수를 해 가기보단 남자가 다 준비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믿는 남자들의 태도가 아닌가?
- 세상풍습처럼 아이를 하나 둘 적게 낳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 결혼식의 축가는 두 사람이 신랑과 신부로 아무도 나눌 수 없는 짝이 되게 그 오묘한 만남을 주선하시고 결혼으로까지 이끌어내시며 그 안에 복된 삶의 가능성들과 헌신의 기회들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축하 받으셔야 할 분이 아닌가?
- 환상이 아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아내와 님편은 적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



[글 이영규]

성시콤 칼럼

〈김춘배〉



예 양

자기사랑

『사랑은 배워야할 감정입니다』를 쓴 월터 트로비쉬는 '자기 사랑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에 이해하기 어렵다. 이기주의를 뜻할 수도 긍정적 자아사랑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며, 네 자신을 사랑하라' (마22:3, 막12:31)고 하시며 자기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사랑이 뚜렷이 다른 것이 아님을 강조하셨다. 결국 자기사랑은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주님은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를 안다. 너의 문제, 아픔, 결점, 너의 죄까지도...'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자기사랑은 오직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절대 진리의 기준이신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에 나는 자기사랑의 근거를 갖는 것이다.

길에 핀 애바라기가 노란 웃음을 더 이상 짓지 않고 보기 싫은 커피 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이미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낀다. 우리 모두 이 가을이 나를 사랑하며, 다른 이를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을 살찌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

(한국 리브리 김주동 박사)

장뇌삼과 각종 한약재를 첨가한! 웰빙 삼계탕!

웰빙 삼계탕 장 삼 원

건강을 생각한 혼(魂)이 담긴 삼계탕,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 메 뉴 · 장뇌삼 삼계탕 · 한방 삼계탕 · 닭도리탕 · 한방백숙

※대형주차시설 완비
※각종모임을 위한 단체 연회석 완비

춘천시 후평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소양댐방향 500m지점
예약문의 (033)254-9191 · 9199

오 행 승 록 원

독특한 침법, 정확한 맥진, 탁월한 치료, 신비한 효험, 확실한 치유

◆ 체질양생
◆ 오행맹정
◆ 기혈순환
◆ 경맥조율
◆ 음약활성

원장 지 광 연

근화동 대성주유소 뒤

전화 (033)242-7588
010-3377-7575
050-2775-7979

/ 포 / 토 / 에 / 세 / 이 /

다시 산수유 숲에서



새벽 이슬 젖어드는 산수유 숲에서
오랫동안 잊어온 시간을 찾는다
문드문 길게 누워 아침을 기다리는 설해목,
그 생명은 깨진 채 나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 있었냐고 마른 가지 흔든다
오랜만이다
부지런한 햇살 한 줌 없는
이 숲은 혼미의 기억 속에서도
나를 깨우는 새벽 잠이다
여기에도 낯선 이들이 뿌리를 내렸었나보다
숲 속은 가지마다 거울이 걸려 있고
내 얼굴은 깨진 유리 파편마다
식물인간이 되어 흔들리는,
깨어진 산수유 씨앗이 이슬에 젖고 있다
다시 시원이다
나무마다 산수유 붉게 익어가고
머리에 봉대를 감고 나를 향해 걸어오는
아 세찬 바람이다 세찬 바람이다

시. 김 흥 주

(시인, 효자감리교회 권사, 민예총 춘천지부장, 성수고 교사
시집으로 '시인의 바늘' 외 동시집 다수)

행 사 안 내

▣ 제3회 강원도 장애인 바둑대회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발전처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강원도 내 장애인바둑의 활성화를 위한 「제3회 강원도장애인바둑대회」를 개최한다.

1. 일 시 : 2005년 10월 6일(목) 10:00~17:00
2. 장 소 : 춘천베어스관광호텔2층 소양홀
3. 참가비 : 10,000원
4. 접수마감 : 9월 16일(금)
5. 문의처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재활팀 (033) 255-2491~3

▣ 월드비전 ▣

♣ 노인대학 수학여행

1. 일 시 : 2005년 10월 5일(수) ~ 7일(금)
2. 장 소 : 거제도 일대
3. 예상인원 : 40여명

♣ 무료검진

1. 일 시 : 2005년 10월 7일(금)
2. 장 소 : 3층 강당
3. 예상인원 : 약 50명
4. 주 최 :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강원재활병원

♣ 제19회 춘천연합찬양축제

1. 일 시 : 2005년 10월 8일(토) 오후 6시
2. 장 소 : 춘천문화예술회관
3. 예상인원 : 1,000여명
4. 참 가 팀 : 동부장로교회, 동원감리교회, 제일장로교회, 서부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소양성결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우두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안디옥감리교회, 중앙감리교회, 사랑의장로교회 (특별출연: CCM가수 조수아)

♣ 제24회 재가어르신 위로잔치

1. 일 시 : 2005년 10월 25일(화)
2. 장 소 :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
3. 예상인원 : 재가어르신 및 자원봉사자 300여명
4. 문 의 : (033) 254-7244

사랑해 빛 월드비전 World Vision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www.gangwon.worldvision.or.kr
강원 춘천시 효자1동 373-90
· 한사랑(1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후원계좌 : ☎ 254-7244
농 협 240-01-078120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21002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독 자 의 소 리

고쳐야 할 기도의 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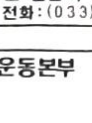
이 무 식 장로(석사감리교회)

대다수 우리는 '주시옵소서'라고 많이 기도한다. 과거에 춥고 배고플 때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어서 얻어먹기를 좋아했던 사머니즘 잔존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잎으나 서나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한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만물을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녀 심아주시고 영생의 복락을 약속해 주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만 하니 하나님도 이제는 내가 줄 것을 다 주었다고 하신다. 더 필요한 것은 네가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앉아서 달라고만 하느냐 하신다. 하나님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일하여 얻은 소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무슨 일이던지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 것이다.

이제는 '주시옵소서'에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업그레이드 된 기도를 해야 하겠다. 진실된 신앙인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때로는 극복하면서 주시옵소서 보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할 일을 성실히 열심히 묵묵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전파와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또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 기적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숙되지 못한 신앙인의 자세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기적 속에 살고 있으므로 단지 기적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존재와 위엄과 복음증거, 생사의 갈림길이 아니라면 기적을 남용하지 않으신다.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때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근간에 나는 아침 일찍 청소하는 미화원이 너무나 신성하게 보여지는 것을 느꼈다. 청와대에 앉아서 긁어모으는 사람과 도로 바닥에서 쓸어 모으는 사람과의 일의 가치를 생각해보면서 교회는 바로 이런 청소하는 미화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긁어모으기 위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보다 오가는 사람들의 상쾌함을 위해 도로 위의 쓰레기를 쓸어 모으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교회가 이러한 일꾼이 된다면 성시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거지 기도에서 주는 기도로, 감사 기도로, 이웃을 위한 기도로, 헌신의 기도로 업그레이드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정국성 목사

춘천 의암리 기도원

부설 쉼터 양로원

의암기도원전경

예배당

예배 안내

- 주간 집회
  매주:월~토요일 까지
  시간 : 새벽 6시, 낮11시, 저녁8시
- 목요 천양집회 - 저녁8시
- 금요 철야집회 - 금요일 밤10시부터

양로원

휴식공간

쉼터양로원 안내

- 노인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치매중풍 등 몸이 불편하신분
- 사정상 가족이 모시기 힘든분
- 혼자 살고있는분
- 밀기임환자 요양 및 기도생활

주소 :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231-2(의암댐발전소 의암유원지내)
전화 : (033)262-7923~4, 262-5694, 010-6388-7929

춘천시 지정 모범업소

유림닭갈비

대표 : 최 순 복 권사

온의동 닭갈비촌 골목 원조집
순수국산닭만 사용하는 맛음과
기쁨을 주는 믿음의 업체입니다.

본관 253-5489
별관 251-5489





♡ MPS 개강(선교세계관학교)



지난 9월 3일(토) 오후 3시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에서는 제9기 선교세계관학교 오리엔테이션을 얻고, 9월 12일(토)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특별히 MPS 출신 국악선교무용단의 공연이 있었다. 제 9기를 맞고 이미 약 15명의 선교사를 배출한 선교세계관학교는 앞으로 12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선교사들의 강의가 진행된다. 교장 민경원장로(춘복음춘천교회)는 "춘천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오는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선교세계관학교를 통해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계로 나가는 선교사 또는 선교동원가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레노바레 축제



갈릴리교회에는 지난 9월 10일(토) 오후 7시 지역의 주민들을 초청하여 '레노바레 축제'를 열어 워십, 오카리나와 뮴로연주, 태권무, 드라마를 선보이고 영화 상영을 하였다.

레노바레란 '새롭게 회복하다'란 라틴어 뜻인데 소양강 강변산책길의 이름으로 갈릴리교회(담임목사 최영조)가 붙여서 부르고 있다. 그 의미는 건강을 위해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의 건강이 새롭게 되고, 정신을 새롭게 하며, 한발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과 그 의미를 나누고자 준비한 '레노바레 축제'는 앞으로도 매년마다 열리게 될 것이다.

최영조목사는 레노바레 축제가 과감한 주민들에게 교회의 문을 열고 다가가려는 시도로 이를 위해 예배당 24시간 개방, 냉수 제공, 화장실 제공, 쉼터 제공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05 춘천 선교대회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유진형목사) 주최로 열린 '2005 성시화를 위한 춘천 선교대회'가 지난 9월 25일(주일) 저녁 부흥성회를 시작으로 막이 열렸다. 장경동 목사를 초청한 이번 부흥성회는 석사교회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새벽예배, 오전예배, 저녁예배로 드려졌다. 연인원 약 1만 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성전을 가득 메웠던 이번 부흥성회에는 성령충만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집회였다. 또 포이펜(춘천목회자축구단) 진행으로 27일(화) 오전 8시 공지천 잔디구장에서 '춘천시 목회자 친선축구대회'가 펼쳐졌다. 특별히 장경동 목사도 함께 하여 춘천의 목회자들과 친선을 도모하였다. 이밖에 28일(수) 오전 10시 카페 크리스찬에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성시화 포럼'에는 기독문화에 관심있는 춘천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한균목사, 최성도목사, 이정베목사, 박의법교수가 기독문화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 후 주제 토론을 하였다. 또 29일(목) 오후 7시 동부교회에서는 직장선교연합회 주관으로 찬양제가 열렸으며, 오는 10월 8일(토) 오후 6시 춘천문예회관에서 '제19회 춘천연합찬양축제'(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주관)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 강원기독경영인 아카데미

(사)한국기독경영연구원이 주관하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후원하는 '강원 기독경영인 아카데미'가 9월 22일(목) 오후 7시 동부교회 2층 소예배실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예배를 드리고 오리엔테이션 후, 한국기독경영연구원장 한정화 교수(한양대)의 '불황을 뚫는 중소기업 생존전략'을 주제로 첫 강의가 이어졌다. 기독경영인 아카데미는 기독경영인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경영인상을 확립시키고 21세기에 경영분야 전문인 선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오는 12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기업대표, 목사, 대학교수 등 11명 강사진의 강의(주임교수 박의법 장로)가 진행되게 된다.

♡ 춘천 제 1기 어머니학교 개강

지난 9월 28일(수) 오전 10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는 아버지학교에 이어 춘천 제1기 어머니학교가 개강하였다. 약 140여명의 학생이 수강을 하였고, 서울본부 어머니학교를 수료한 40여명의 스텝들이 본 학교를 섬기고 있다. 이날 김주환 복사의 격려사가 있었고, 한은경 권사(어머니학교운동본부 본부장)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어머니학교는 10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5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유교적 관습과 잘못된 사고로 인해 억눌려서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어머니들의 회복을 소망한다.



♡ 해비타트 입주식



지난 9월 14일(수) 오후 2시 한국사랑의 집짓기 춘천지회는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소망의 마을에서는 '2005 사랑의 집' 입주식을 가졌다. 이날 한국사랑의집짓기연합회 정근모 이사장, 춘천지회 배계섭 이사장, 류종수 춘천시장, 춘천시의회 함종호 의장, 강원기독교연합회장 임신영목사, 자문위원 김주환목사, 김창수목사, 이사 이학규장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 김성호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특별순서로는 땅울림사물놀이와 선교세계관학교 국악선교무용단의 공연과 국악찬양단의 가야금 연주가 있었다. 8세대가 입주하는 사랑의 집은 지난 5월에 착공했으며 공사비 3억 4000여만원과 국내외 자원봉사자 약 3,500여명이 참여하였다.

♡ 기독문화 활성을 위한 준비모임

지난 9월 16일(금) 오전 7시 카페 크리스찬에서는 춘천기독문화 활성화를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날 한균 목사(기독문화위원장)는 더욱 기독문화가 활성화 되고, 모든 교회와 시민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카페 크리스찬의 운영을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에게 이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발기위원회를 위촉하였다. 이 발기위원회는 차후 운영 및 관리 이사회 구성을 위한 '춘천기독문화 프로젝트'(가칭)를 계획 실행하기로 하였다.

♡ 라이즈 업



지난 9월 24일(토) 중앙감리교회 교육관에서는 예수사람운동과 CBS춘천방송의 공동주관으로 Rise up의 부활과 함께 워디씨, 일레듀오와 함께하는 콘서트가 열렸다. 워디씨와 일레듀오의 콘서트는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이어 예수사람운동 Holy kids의 찬양인도로 진행되었다. 지난 수개월간 휴면의 기간을 가졌던 Rise up집회는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9월을 시작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Rise up'을 통해 춘천의 많은 10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기대해본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춘천나눔교회
since 1998 nanum community
담임목사 피종호
우리는 춘천 성시화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존재한다
200-18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998번지
☎ 251-9191 fax)252-0091 www.ccnanum.org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새순교회
담임목사 김현곤
· 성령충만
· 섬김
· 재생산
· 선교와 바른 삶
· 성시화와 북한선교에 힘쓰는 교회
200-18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50 ☎ 033-264-0291 FAX 264-0297

사 설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십니까?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가을이다. 가을에 대한 의미표현이 여러 가지이지만 무엇보다도 추수가 으뜸이다.

갈라디아서6장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다. "만홀히 여기다"는 헬라어로 '미크테리죠'인데 "코웃음 치다" 그리고 "비웃다"라는 뜻이다. 의미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실 분이 아니시다"는 뜻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직한 원리이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분이시기에 속일 수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뿐한 대로 갚아 주신다. 따라서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게 하시지 않는다. 뿐하지 않은 것은 갚아 주지 않으신다. 요행을 바라지 말자. 성경은 연이어 말씀하신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흔히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서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은 심리적으로 보면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올무에 스스로 속아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남에게 피해를 받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결론이다. 즉 남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 스스로 속이지 말자.

적게 뿌리고도 많이 거둘 수 있다면, 거기엔 분명 어떤 속임수가 있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노력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손해 보고 있을 것이다.

이 세상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다. 심은 만큼 거두려는 정직한 마음에서 떠나,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든지, 적게 심고서도 많이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욕심이며, 그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한기가 옷깃을 돕고 겨드랑 밑으로 파고든다. 농부들의 손길은 심고 가꿔온 작물의 거둠에 바빠졌다. 추수가 끝나면 부지런한 농부는 밭을 다시 갈아엎고 가을에 심어 여름에 거둘 작물을 심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 가을인가? 그리고 또 무엇을 다시 심고 있는가? 심은 것은 거두고 거둔 자리에는 다시 심자. 그렇게 해서 내일의 풍요를 약속 받자. 돈 명예 지식 권세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으로 헌신 봉사 노력하여 육체만을 위해 심지 말고 영을 위해 심음으로 썩을 것을 거둠이 아니라 생명의 것으로 거둘 수 있도록 다시 심자. 혹한의 겨울이 올지라도 주님이 사랑으로 길러 주실 것이요 추수케 할 것이다.

❀ 알려드려요

◆ 예수사람운동
1) '청소년 지도자 학교'
주제: 찬양 인도와 중보기도
일시: 10월 8일 ~ 29일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문의: 244-5400/018-305-5171 [cafe.daum.net/holykids]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홈 커밍데이'
일시: 10월 2일(주일) ~3일(월) 장소: CCC 회관
2) '세계 기도의 날'
일시 : 10월 4일
3) '설악산 기도 동반'
일시: 10월 8일(토)
4) '경기도, 강원도 간사 수련회'
일시: 10월 18일(화) ~ 20일(목)
장소: 인천 CCC 회관
문의: 254-5776

◆ 예수전도단
1) 예수전도단 춘천 학습모임
춘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동부장로교회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일시: 10월 5일~11월 3일
중보기도책자 권당 2,000원
단체 구입시 홍보용 동영상CD(5분)를 드립니다
문의: 252-1128
3) 세미나
주제: 이슬교제와 결혼생활
강사: 김 길 전도사
일시: 10월 28일(금) 오후 7시
장소: 춘천교육대학교
대상: 관심있는 분 누구나. 회비무료.
문의: 252-1128

◆ JDM
1) '창립 28주년 감사축제'
일시: 10월 3일(월) 오전 10시~ 오후 4시
장소: 석사감리교회/강원대 대운동장
2) '지장인을 위한 성경 강해'
일시: 10월 24일(월) ~ 27일(목) 오후 7시~ 9시30분
장소: 춘천지구회관
문의: 252-3192 / 011-9058-3192

◆ IVF
1) 'AMP 영천 강의'
일시: 10월 1일(토) 오전 10시
강사: 박상배 선교사(GP선교회)
장소: 아시아선교원
2) '전국 간사 훈련 및 수련회'
일시: 10월 17일(월) ~22일(토) 장소: 대전 옥천 좋은 등산
3) '말씀 사경회'
일시: 10월 26일(수) ~ 28일(금) 오후 7시
장소: 한림대 다산관
4) '춘천 IVF 가족의 날'
일시: 10월 29일(토) 오후 5시
장소: 아시아선교원 문의: 252-5200

◆ 어린이전도협회
1) '새소식반 강습회'
일시: 9월 5일 ~ 11월 22일 매주 월요일
오전반: 10시~1시 오후반: 7시~10시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net/ceforh]

◆ GBT
1) '가을학기 위클리 프스쿨 개강'
일시: 9월 12일~12월 12일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장소: 춘천에덴교회 (팔호광장 부근)
2) '25회 캠프 위클리 프'
일시: 2006년 1월 5일~25일(20박21일간)
장소: 네팔, 카트만드
비용: US$ 1,200 (약120만원선)
대상: 선교센쉬자 및 헌신자
내용: 언어훈련, 선교사 기본훈련, 문화체험, 현지적응훈련, 비전트립 등
신청: 10월 중순까지 http://www.gbt.or.kr 또는 GBT춘천지부
문의: 252-3927,011-367-6085 김대원 간사 033@gbt.or.kr

◆ 목회자 산상기도회
일시: 매월 1일 오후 11시/매주 토요일 오후 9시30분
장소: 대룡산 (거두리 버스 종점에서 집합)
문의: 010-8782-8750 최승호 목사(춘천은평교회)

◆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한 '열린 포럼'
일시: 10월 5일(수) 오전 7시
장소: 카페 크리스찬
주최: (재)한민족복지재단
후원: 통일교육협의회 · 춘천교역자연합회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장로연합회 야유회
일시: 10월 8일(토)
장소: 오산 광은기도원

◆ 제19회 춘천연합찬양축제
일시: 10월 8일(토) 오후 6시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
주관: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성시신문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계좌: 농 협 203-02-280238 조남진
조 흥 716-01-001389 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남춘천감리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랑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사랑의장로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사우동장로교회	서부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에덴교회	일신교회	주찬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동부장로교회	춘천성결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한빛장로교회	천일현수막	베타트(춘천지회)
의암기드온	엔투어	유림닭갈비
초인테리어	디티피아	농협선교회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애	안 정 숙	염 필 남
오 홍 수	이 용 규	이 원 기
이 판 호	이 학 규	유 근 창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관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한 '열린 포럼'
● 일 시: 10월 5일(수) 오전 7시
● 장 소: 카페 크리스찬
● 주 최: (재)한민족복지재단
● 후 원: 통일교육협의회 · 춘천교역자연합회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